

김해 공존의 도시를 향하여

김해문화공존캠프

# 결과보고서

연습하는 인문과 공존



지역 내외의 교차

주최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

가족과 상상하는 공존

## 차례

...

### 프롤로그

김해 공존의 도시를 향하여

### 1회

[9월] 연습하는 인문과 공존

### 2회

[10월] 가족과 상상하는 공존

### 3회

[11월] 지역 내외의 교차

...

프롤로그

...

## 김해 공존의 도시를 향하여

김해는 가야의 역사와 현대가 함께 있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삶과 일을 찾아 김해로 온 새로운 주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김해의 원도심, 한옥체험관을 미래하우스로 가꾸어 가는 시작점에서 김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주체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와 전통, 이주민과 선주민, 오랫동안 지역의 삶을 가꾸어온 어른들과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과 아이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형식과 존재는 그저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면 낯설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열고, 편견을 걷고서 바라보고 만나보고 걸어보면 그 속에서 도시의 미래가 싹트는 풍부한 땅이 됩니다.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이있기에 풍부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김해. 그런 김해를 만들어가기 위 포용과 상상의 문을 미래하우스의 문화공존캠프로 열었습니다.

# 9월 문화공존캠프

## - 공존의 감각 열기

9월 6일-7일

'당신이 생각하는 공존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한  
9월 문화공존캠프.

총 13명의 김해 시민과  
따뜻한 한옥에서 공존을 꿈꾸는 시간

참여자: 13명

대상: 공존을 상상하는 김해 시민들



## 몸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몸워크숍 20:00-21:30

강사  
안무가 허경미

눈을 감고 업무에 지친 우리의 몸을 조금씩 깨워봅니다. 한옥의 중심에는 언제나 커다란 마당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 마련된 빈 공간은 일상 속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선조의 지혜이자 시간을 넘어 후대로 전하는 귀한 유산입니다.

김해 속 한옥체험관, 한옥체험관 속 마당에서 차분히 호흡을 정리해봅니다. 마당을 자유롭게 부유하며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걷고 싶을 때 걸으며 함께 움직입니다.

고요히 호흡을 일치시킨 후 김해 수릉원으로 오릅니다. 나즈막한 언덕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서로 등을 맞대며 뛰어봅니다. 그렇게 함께 누워 서로의 온기로 굳어있는 몸을 깨우며 문화공존캠프의 첫 날을 시작합니다.



강사  
사회학자 장현정

## 우리가 나아갈 다음 세상

인문특강 21:30-22:00

공존의 감각을 깨운 참가자는 사회학자의 안내로 역사 속 소수만 획득했던 인간의 지위를 되찾아봅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일 수 없던 존재들. 당연한 권리를 갖기까지의 도전과 아픔, 뜨거운 시도를 하나씩 되짚으며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후 크리스조던 감독의 '알바트로스' 영상을 나누며 인간의 권리를 넘어 동물과 사물의 권리에 대해 토론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작은 생명을 어떤 입장과 태도로 대할지 각자의 목소리로 공존의 감각을 키워보는 밤입니다.



# 공존 키워드 토크

공존의밤 22:00-23:00

무작위로 고른 20개의 공존 키워드로 우리가 지나친 목소리를 살피봅니다. 이데올로기로 갈린 사회. 종교로 갈린 사회. 피부색으로 가해지는 선택적 차별. 오늘 우리의 공존을 가로막는 장벽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존중받는 세상, 동물권과 사물권이 함께 보호받는 세상. 플라스틱이 사라진 푸른 빛의 바다. 사랑과 연민, 관용으로 가득찬 종교. 신체의 불편함이 장벽이 되지않는 세상. 참여자는 각자의 키워드로 함께 만들어갈 '공존의 사회'를 그려 봅니다.

기후변화 / 계급 / 빈부격차 민족 인종 젠더 인권-동물권-사물권 / 민주주의 / 지역 / 세대 / 건강 / 정보 / 교육 / 에너지 / 일자리 지속가능한 소비 / 바다 (해양) / 종 다양성 (생물다양성) / 평화 / 종교

강사

작가 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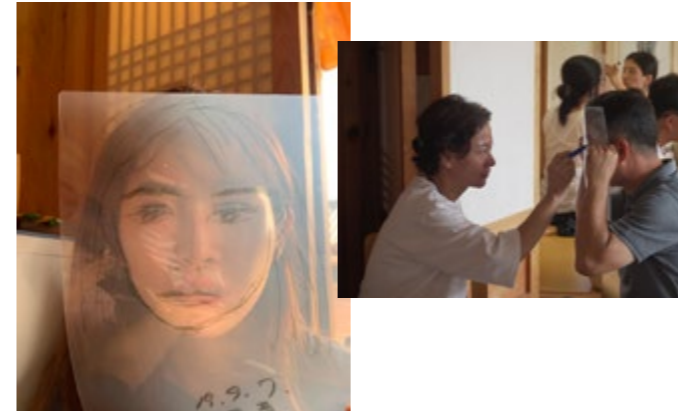
# 서로의 얼굴을 그리는 경험

팸드로잉 10:00-11:30

짧은 1박2일의 캠프를 마치며 서로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공존의 시작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시도입니다.

눈꼬리는 올라가는지. 코는 넓은지 높은지, 입술의 굽기는 어떤지. 얼굴엔 어떤 모양의 주름이 있는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봅니다.

공존을 위한 시작은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오래도록 바라보는 일입니다.



# 10월 문화공존캠프

- 가족들과 공존 상상

10.18-19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공존캠프 2회.  
사회의 가장 낮은 단위인 '가족'.  
함께 사는 것이 곧 '공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함께 사는 사람들과  
보다 나은 공존을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참여자: 23명

대상: 공존을 상상하는 김해 가족

樂  
樂  
書  
以  
消  
憂

# 어른과 아이의 몸-머리 깨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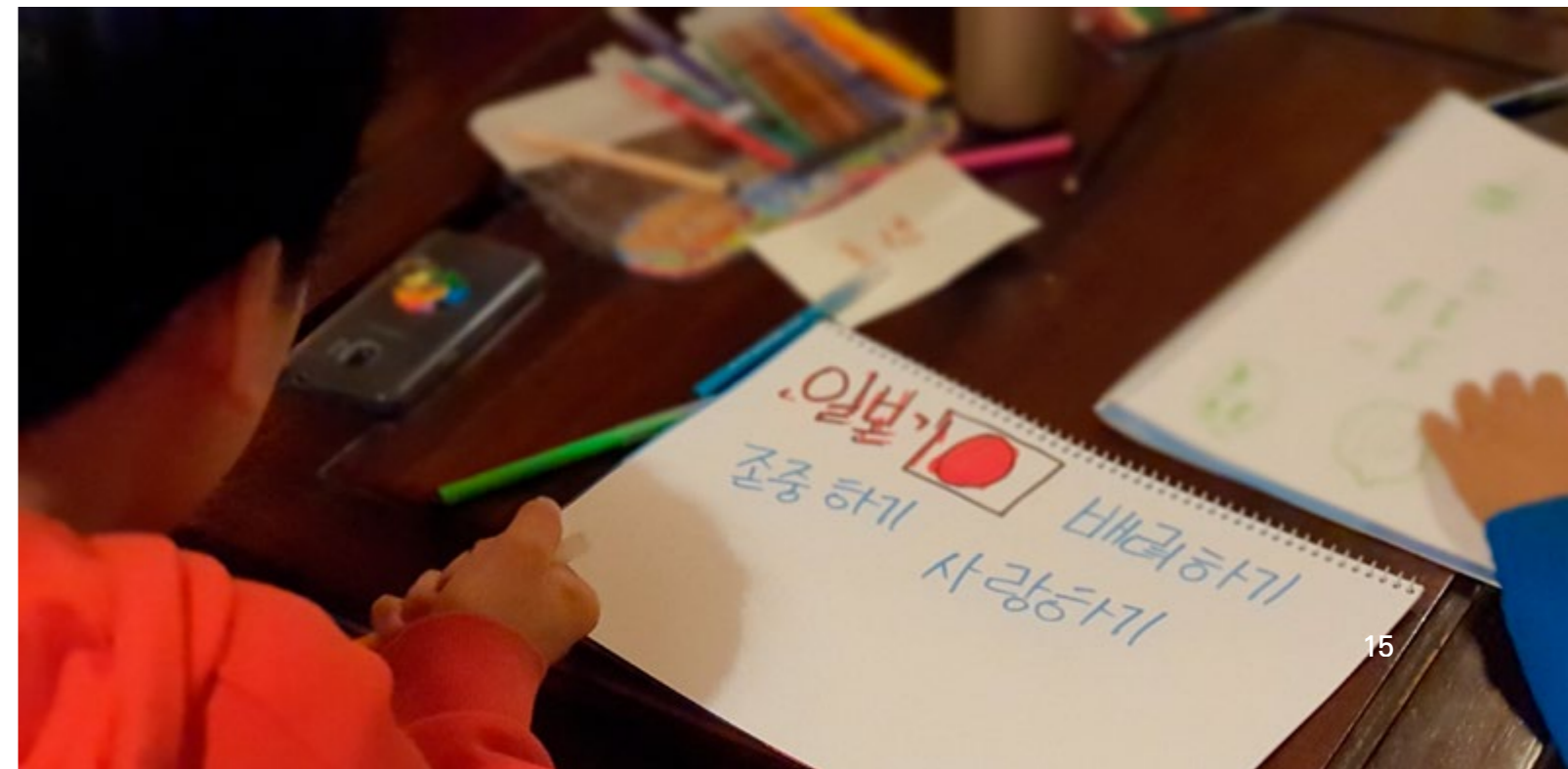
## 몸워크숍 & 스토리텔링 게임 19:30-21:00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건 잠시 동안의 멀어짐. 부모님들이 몸워크숍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처음 만난 친구 동생들과 별채에서 그림으로 공존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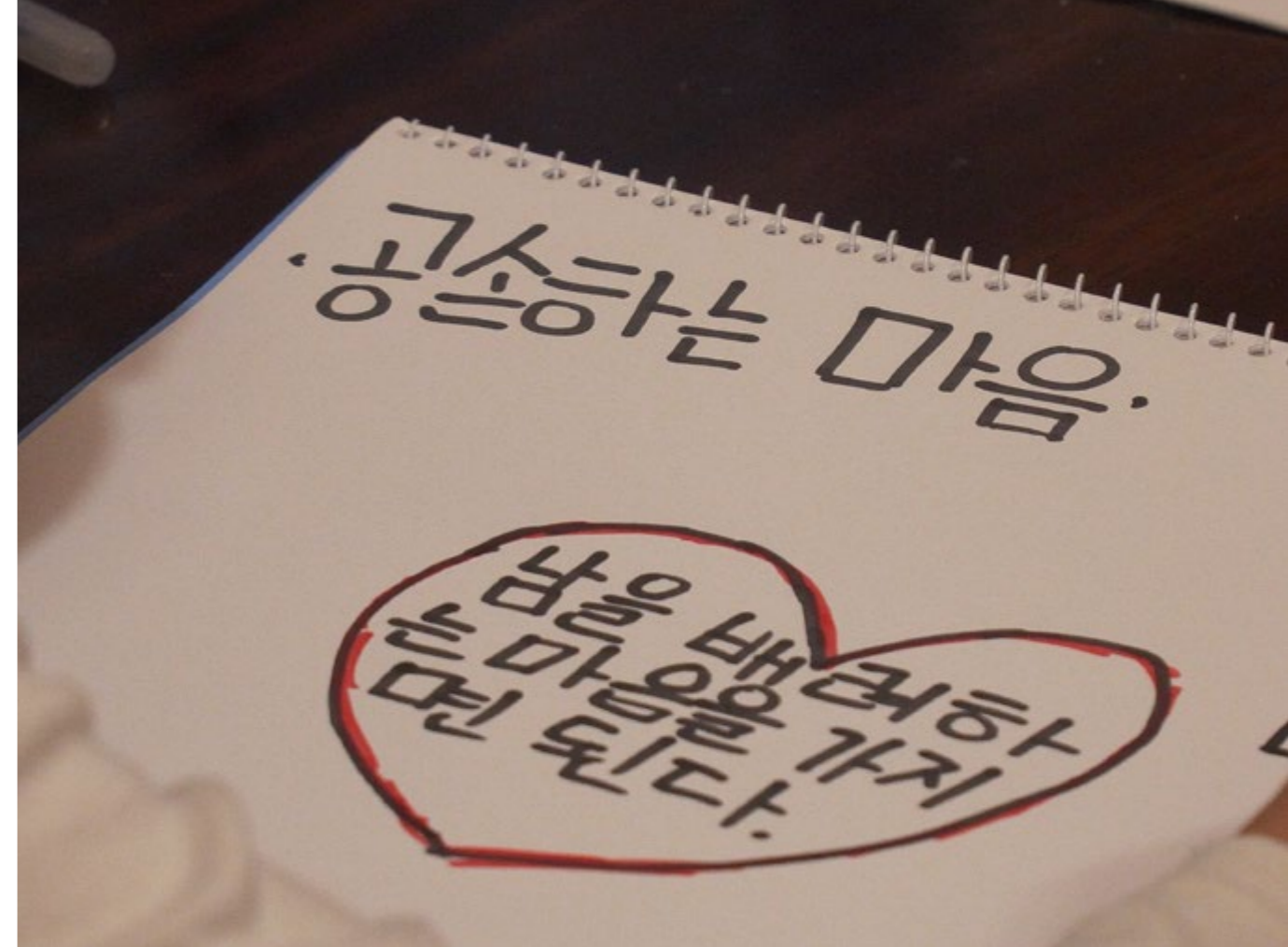
어른들은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서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우기 위해 빠른 템포의 술래잡기도 해보고, 한 사람의 움직임에 주목해 모두의 몸 동작이 바뀌는 경험을 이어갑니다.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의 흐름이 되어 이어지는 시간.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짐작합니다. 그 동안 쓰지 않던 몸의 근육을 써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어 봅니다.



아이들은 별채에 모여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진 보드게임으로 엄마아빠와 떨어진 어색함도 잠시 어느새 서로 다른 개성과 상상에 깔깔거리는 사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공존하기 힘든 대상들을 적어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줍니다. 일본과의 공존도 어렵고, 언니 오빠랑의 공존이 힘들다는군요.









## 음악으로 상상하는 공존

인문특강 21:00-21:30

전세계의 음악인들이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Playing For Change. 따뜻한 노래 'Stand by me'에 맞춰 다양한 대륙, 다양한 문화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씩 얹어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에 따른 아티스트의 색다른 차이가 독특한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영상. 공존하는 삶을 노래하는 예술가의 염원이 전해지는 순간

## 가족이 함께 그리는 공존

공존의밤 21:30-22:00

어른들이 몸워크숍과 인문특강을 통해 몸과 머리를 유연하게 한 뒤 아이들이 스케치 북에 그려온 공존에 대한 상상을 함께 들으며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아이들의 생각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른들의 편견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나올 때는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이 부족했던 가족들이 세대를 넘어 공존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고개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 사이 밤이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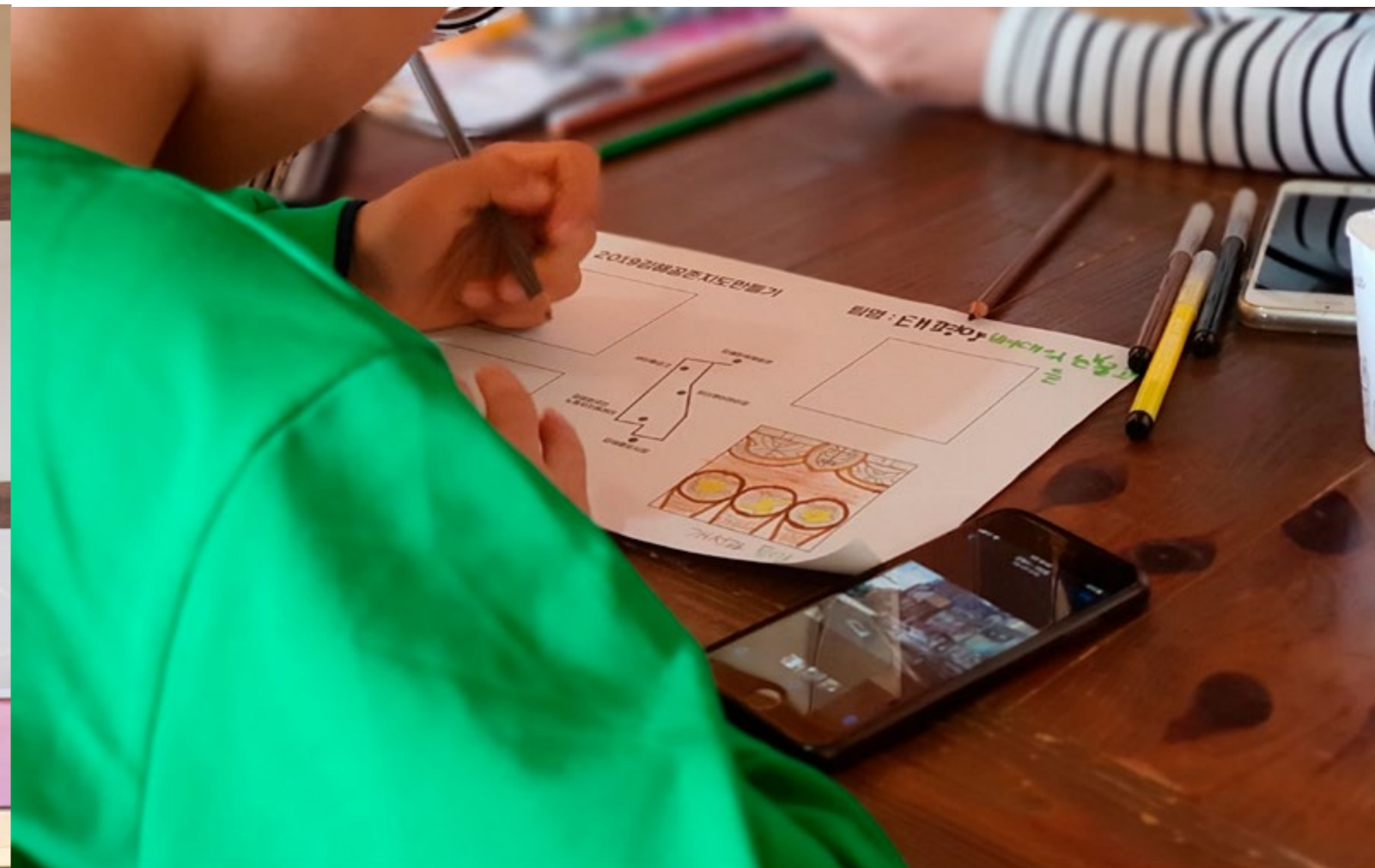
## 김해공존지도 만들기

팸드로잉 10:00-11:30

김해공존지도만들기.  
움직임 워크숍과 인문특강을 통해 얻은 감각으로  
김해 한옥체험관을 출발해 봉황동과 동상동을 산책하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공존지도를 만들어봅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면밀히 살펴보고  
도시 곳곳에 어떤 이야기가 비어있는지  
상상하며 그려봅니다.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도시를 낯설게 보는 경험







# 11월 문화공존캠프

- 지역 넘어 공존 그리기

11.08-09

문화공존캠프 세 번째 시간.  
김해에 살고 있는 시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손님도 모셨습니다.

늦은 가을여행을 떠나듯  
단풍이 곱든 한옥으로 모인 사람들.  
김해, 부산, 창원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깊어갑니다.

## 문화공존캠프

‘공존과 포용’을 주제로  
인문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도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 14명

대상 : 공존을 상상하는 김해 / 타지역 시민

세 번째



## 손과 발을 맞대며 깨우는 감각

몸워크숍 19:30-21:00

앞선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어떤 내용에 집중할지 고민합니다.  
짧은 시간, 낯선 관계.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을 맞대고 손을 맞대며 서로의 체온을 나눕니다.  
차가워진 바람에 굳은 몸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는 시간.



## 작은 생명을 짐작하는 마음

인문특강 21:00-21:30

걸으면 뒹뒹 우스꽝스럽지만 한 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멋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로 어떻게 생명을 잃고 있는지 예술가의 영상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해양생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생명과의 연결과 우리의 실천을 짚어봅니다







## 세계를 넘나들며 하나되는 밤

공존의밤 21:00-24:00

**문화공존캠프의 마지막 밤.**

지역을 교차하며 만난 우리인만큼  
마지막을 기념하는 음료도  
세계를 교차하며 준비합니다.

청와대만찬주와 전통 막걸리로 시작해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와 남미.

세계 각국의 맥주를 나누며 오늘 밤,  
서로가 꿈꾸는 공존과 우리가 나눈 느낌을 간직합니다.



## 공존의 시작, 일상의 두드림

팜드로잉 10:0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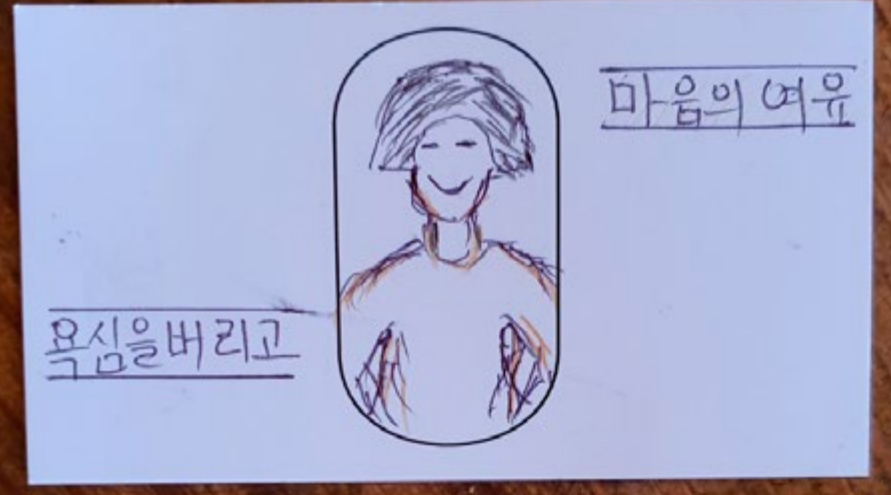
낮설게 보기 - 지도를 그리며 다르게 상상해보기.

지난 두 번의 드로잉에 이어  
3번째 캠프의 마지막 아침, 아직 쌀쌀한 아침공기를 따라  
주말이면 이주민들로 북적이는 동상동 시장까지 함께 걸어봅니다.

낮설지만 가까이 있는 삶.

그들의 일상에 문을 두드리고 두 발과 두 눈으로  
공존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 공존의 시작, 일상의 두드림

팸드로잉 10:00-11:30


원도심에서 보았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김해에서의 감각과 기억을 토대로  
나만의 공존문구가 담긴 명함을 제작합니다.

앞면엔 나의 얼굴을 직접 그려보고  
나만의 공존키워드를 설정해  
다시 시작될 일상에서의 태도를 약속합니다.


짧은 김해에서의 캠프가 끝나더라도  
공존의 대한 감각을 잃지 않자는 우리 모두의 약속.








주최  **김해문화재단**

주관 김해문화도시센터

실행  (주) 호밀밭출판사

협력  우리 동네 사람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해시

문화공존캠프는 김해문화도시센터의 미래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